

가헌출판우종이대국중합
일월日六廿월十년二廿국민

호일六廿월十년二廿국민한대
일六廿월九 년진정 력을

報週洋平太

KOREAN PACIFIC WEEKLY

SERIES 27 VOL. II NO. 409 OCT. 29²⁶ 1940

931 N. King St., Honolulu, T. H.

Published and Owned by Dongji Hol

Subscription Rates: \$4.00 Per Year; 10 Cents Per Copy

아는레하는사름고통거리

엇던날오후에 스밋이동내집 쏜쓰가 말한말을압마
당에서살어플여가면서 구원하야 달마하기에 가서도
아주엇다

쏜쓰가집편을열나하기에 스밋이 편을열은죽 쏜쓰
가말을살어드러서 二층으로올아서 의지로 두샤람이
그말을죽간중에 너어두고나왔다 스밋이호도 이상히
서쏜쓰에게 무슨싸름으로 말을죽간중에넋느냐 무론
죽 쏜쓰가대답하기를 내매부가잇는데 그는 세상에모
르노것이업노라고 자담을쓰口죽이도하기에 내가 그
의자담을노것이 너무도못기가 스러서 말을죽간중에
두어세내매부가 저녁때외서 죽간중에가 말을보고나
서제가아는것처럼 주저거리게 만드려보라고 말을죽
간중에푸엇노라
내매부가 푸엇이라고 대답을짓을 적정하재내바라
두겟노라하엿다

Entered as second-class mail matter, April 29, 1930
at the post office in Honolulu, Hawaii, under
the Act of March 3rd, 1879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1910년 11월 1일 창간
 1910년 11월 1일 창간

大 平 報 週 刊
 KOREAN PACIFIC WEEKLY

Vol. 1, No. 11, 1910
 Published by the Korean Pacific Weekly Co., Ltd.
 100, N. 1st St., Seoul, Korea



미, 일, 동양인들이 생긴
 다면

한국의 원수 보복을 서기가 생긴다면 한민들은 할것이
 무엇이더 그 동안 그 반면으로 한것이니 무엇이든 7년전
 에 히틀러가 덕국정권을 붓잡아서 덕국의 구수 성법을
 보복코저 할시에 러한국정개들은 자존심이, 휴만성이
 대시롭게 넘어지안있고 히틀러가 오스추리아를 병합
 할시에도 성법발동에 불이 썰러지지안있다고 너버러
 두었으며 으라 인린 무장히 제지방을 히틀러가 전령을
 시에도 성법티도는 설마히틀러가 구라파를 요동할까
 하여서 이에 대한응답 국발설계가 일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할시부러 원통평화는 일서지고
 일본이 자힘자지야 만주를 랑식할시에도 렬국이 그

태평양주보

태평양을 엮고 중국의 요회항 도시를 점령하고 안남
 세 점축하야 동인도를 탐내며 필리핀을 엮으며 영령항
 항을 공략코저 할때 영, 미에 위키가 도라온 줄 알고 인제
 야 미국이 태평양방면으로 국방을 증축하며 百만군사
 를 조련하야 일본의 남진정척을 방어코저 한다 미국은
 범의 색계길너서 화근 당할것이나 다름업스니 한국이
 합방당호지 30년에 일본은 소약호선나라로서 지금
 와서는 안하무인이니 소위 一 동국이 타하야 미국과 러
 싸우기를 제축하니 평화를 숭상하는 미국인을 일본의
 호전적 준비와 힘통을 살피고야 그대도 잊을수업는가
 그리하야 미국은 원동에 거주하는 만여명 미국시민
 을 권고하야 환국하타하고 일본관벌파의 외치는미일
 전쟁을 허장호망설이나 철업는자의 발동으로 넘어지
 안코 일본의 성명이 실상사실인것을 깨다라서 그방면
 으로 미국이 준비한다 7년전 히틀러가 덕국서 세도를
 잡을시에 一九〇〇년 6월에 세계 一 동국인 법국이 결
 단나서 마지노요색지를 제법못써 보고 항복을 줄이야
 누가 잊었으며 7년후 오늘날 원동현상 유지에 대하



야 미국정치를 일본이 냉소하고 미국과 러고 리라분할
넷날 수작을 다 거둬치라 할때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히 보겠다고 국방준비할들이야 누가 꿈이나 꾸었스리
오

우리나라말에 사람이 상수하면 세계번천을 더만히
본다 하였스니 우리 당대에 평화를 위하야 온갖것을 회
싱하며 써라만 능주의를 상상하는 미국이 미국대의 수
출에 세가지는 일본의 남진을 막으라고 국고를 손상
할만치 군수품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인전부를 동양서
소환하니 미국의 힘종이 - 단위협이나 정적수단이 아
니오 실정에 있어서 미국 국고를 증시부서하고 동인도
를 군력으로 점령하면 미국도 역시 군력으로 막아난다
함이 다

우리한인들은 우리가 대항하는 일본보복을 시일을
달할것짓는데 만일 미일충돌이 사실된다면 한인들은
너의 지를 물든다고 첫저마음부터 준비하였는 가 이런
비상시기에 사상준비를 중대시함이니 이런세에도 전
파가지 사람이 무슨회의를 할시에 리론이나 깨고 주책

기독교학원찬성회

찬성회에서 기독교학원교육사업을 후원협조 하였스
니 이노우리가 자녀교육에 대한 한가지것을 리할호니
다 무슨새로운도련합찬성회에서 매년五十만원 자선
금을 모집하야 二十二年에 대한 자선사업을 런합후
원하지안는가 호형부자들을 돈을 다 내고 심히너는 줄
은아지마시오 만일 그 자선사업을 허가지안에서 호형
거리에 거지가 구걸하러 단인구면지 병든사람이 거적
을쓰고 길모퉁이에서 신음을 하면지 절든 부녀가 어린
것의 유유가 업서 우유전방에 가서 우유는 못사오고 도
적질을 한다든지 유희장이 업서 소년들이 범죄하야 갑
유생활을 하게된다면 하와이사는 부자는 다 도망가고
어디가서 하와이를 너세워 힘세 못한다 그럼으로 그네
들이 매년 그 그들의 먹고사는 돈에서 열미씩 쓰더서 자
선사업에 쓰다

기독교학원은 자선사업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한인
과여서 기독교학원에 대한 감상은 런합자선과 대등것이

업시 주적이 나설고 안저서 시금을 환제히결은 교사하
고 파당분정의 감정 푸리나 개인감정으로 감상담을 진
술한다 할진된 소위열불에는 정성이 업고 저방에 만마
음이 잇다는 것으로 조선사람이 나라이에는 사상이 집
중못되고 서로 평등하기에만 눈이 멀게서 덤비면 어느
히가에 민족운동의 문히보리오

법국법정들이 자유를 너무 찾다가 정당통락에 나라
가 걸단났고 영국은 너무 원고하야 히틀러의 구주정부
을 문상하다가 참정을 당한다 우리조선사람도 인도자
절제를 밧아가며 북종정하야 일출처루워 갈것이 다

제각각 다 대장이 라 하면 싸움장들이 잇서야 정정
을 하지 않겠나냐 후리는 자유도 종이 저비리고 감정도
다 못의 노코 한인사회에서 무엇을 잊덕케 정하던지 그
들의 지도를 밧어 할 수로 나아가서 미국에 충성하야
三十四년국은 인은 덕을 보단하야 동시에 공복원수보
복에 우리가 선봉되도록 서로 힘쓰느니라

나만찬가지 마 기독교학원은 무슨선언금이 잇서 그 돈으
로 정성비 보충치안코 - 반공포의 찬성금정성비를 보
충하야 하는데 금기금년에는 자조모히지안코 래유일
에 찬성회로 모히니 - 반공포는 다 수참예하야 찬성금
을 발납키를 마라노라

우리한인들이 여기서 여윗게 살며 우리한인청년에
게 귀속하며 종교수양을 밧아 교육으로만은 설비를 못마
련히노아서 어린한인들이 우리개결성함을 할다면우
리가 잘먹고 잘사는 것이 가시갓다 우리소식을 우리가
보살피지 못하고 잇자라 국민에게 의탁하리오 그들의
정리지도하는 책임을 우리가 져고 그들을 양육하며
교육시킬직척이 신헌우리일다 너공출출사람이 거지
로 구걸함을 너가 볼때에 너가 당하나 다름업는 줄알어
야 할것이오 너공출이 만인의 충찬을 밧을세 나역사의
개가 오속하게 올라간다

기독교학원찬성금 너는 것이 우리청년장래에 투자하는
것이니 학원에서 공부할고 후일에 조흔인근을 화한
으로 말때안아나오면 당선네들의 찬성금 단리의 이 배



장이 몇몇배나 된 것이다. 한편 동포는 한사라도 써 지지 말고 찬성금을 제각기너기를 바라노라

신사 증비

전호련속

패동과 언덕힐 당시의글 서귀문

조선신사참배 문제에 관하여 김평양을 말한 기전에 그 시작된 원인을 대강참고하려고 한다. 一九二五年부터 조선 신사란 것이 서울에 설립 되었고 또 교회 회성들이 참배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원칙이 참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울시장에 통지하고서 장은 실행하였으나 일본헌법에 종교자유가 있다는 것을 거절치 못하였다. 당시 기독교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 모면하였으나 다른 학교에서는 실행하는 수 밖에 없었다.

一九三〇년에는 모든 학교가 다 갖춰진사에 참배하야 명령하였다. 현유교나 장로교회부에서는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 로마교황과 동경사에 죽정교섭하라는 뜻을 발표하였다. 一九三五年에는 총독이 었던 선교

서귀이호신앙을 김평양이 개척하는 것을 기록하야 할 일이다

여기 더한 장리가 그 무엇이냐 하누님의 대답은 이어와 갖치 평민이다. 자유당이 교회관을 제정코자 하기로 하였다. 교회가 현실지위에 약함을 통탄한다. 일인관리자신으로도 교회항거력이 그러케 약하리라는 것을 예상치 못하였다.는 내용을 말하였다.

신도는 종교가 한인것으로 주장하는 일본정부논민 중일부분에서 애국방면으로 극진하게 충성함을으로 지고지드려서 종교보담 높은 대우를한다

엇던곳에서는 순사압박을 못의어서 순종하고 또 었던 세면 선교사들 반대를 불고하고 본방교측에서 순종하리고 준비하기 때문에 관저환사정을 비저된다

학교가 폐지된후라도 선교사들은 교회사부를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조선교인들이 작정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나 총회에서 순종한다는 순서를 서름으로 전회 가 탈락한다

一九三九년도 十一月경에 선교사모씨 편지너우를

김평양주보

사을 증지지 목하야 신사에 참배하라고 강권함으로 거절하였더니 그이의 개휴가를 유하여서 조선으로 도라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사법법동을 국가라는가 종교파로 구분하여서 논지하 면 몇가지 조건이 드러난다. 조선에 잇는 일인교회로서는 신사참배에 관계된 문제 가 없다. 일인교인들은 신도가 종교가 아니라 는 것을 인준한다. 조선인 교회에서 는 선교회에서 예상하 는 바와 반대로 신사참배가 급박 할 때에 동트러서 거절기를 마지 않았었다. 그러나 압박과 화대가 심함을 써타서 그상대가 라 소변경된 모양이니 힘위에 더한 판단일가 한다. 一九三八년도 총회개회시에 신사참배는 교회와 무관하다는 통의가 제출되었스되 아모도 나서서 반디치 않았었다. 총회가 소집 되기전에 순사들이 도라다니며 미리 단속하야 입을 씩다 불교침 두터도를 취한다 는 사담들만 출석시켰다. 최근 몇달동안은 장로회에서 사신사참배가 무관하다는 뜻을 발표했다. 그런 협동을 파거에 비하면 차이가 불문크디고 하겠스나 소수일방정 무서운 화대아래서 우순히 참아

참고하야서 조선교인대중이 교회최인자리를 그다지 후원치 않는 점을 발견했다. 그대개는 이러하다. 조선형편으로 말하면 날노 일인주권을 능려감이 분명할데 누구던지 불복하면 기여히 걸단을 내리고한다. 만일 교회 가 정부기관으로 리용되면 두피담이 생겨서 한파는 무상순배길을 가고 한파는 그런 길을 아니가 라 하야 큰고조를 단속성부르다.

신사참배에 관계된 일인협동을 세가지로 구별할보고 대략은 이러하다. 一은 일황사진출향하야 절하는 것 二는 일황교육선포문출력는 것 三, 정절이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세가지가 교회령수들을 괴롭세한다. 그런 주교인으로 기가 참가함이 맞당하락 일인본안에 잇는 선교사들이나 일인들은 맞당하락 하는 것을 말한다. 저를 신사참배태식이 민법인사들에 무관하라는 것이다. 교회인도 자들은 불복하는 절에 잇서서 위협이 써마음을 넘어다본다. 일인교인들은 일본에 충성함으로 거절할 넘두도 안키니와 만 一 불복하면 교회체제에 손해가 잇출지를 잘안다



일본정체세력이 조선에 드려 옴으로써 조선인들
도 일본인과 통 하나 정우를 당하게 되었다 감리교나 장
로교대판단은 일인당국자들에게 종교상 문제를 이르
키지 않으리라는 허락을 받았고 또 종교문제 로의를 거
절한다 선교사들의 의견도 교파를 따져서 다르다

장리박친을 정하는 마당에는 사실을 밝힘이 맞당하
다 일인중에도 후자는 신사참배가 종교판념이 아니라
하고 후자는 종교신앙을 발표함이야 야 양파의 전이
있서 하나는 발전항상을 위하여 당국측히성을 순종하
다 함이오 하나는 그희성을 고지못지안으면 교회재계
가 득히를 당하리라 하는 것이다

일본에잇는 미국선교사는 이문제를 의논하다가 모
용이어서 시작하여 드러다본다 조선인은 일인이 안인
고로 일인들이 애국이니 직분이니셔 드러 너는 것을 조
선인으로서는 무면히 못기실출것이 실정이다 일인은
신사참배를 의례로 존중안다 필자는 그런 사람도 잘알
고 또 필자는 하누님권리를 침손하는 사정에서는 죽업
을 불고하고 본두살사람도 잘안다 또 드러네들이 신사참배

에 종교판념이 없다 고말은 년지도 모른다 그런즉 필자
가 그들을 실사신자로 모라서 망하랴

호상부장래

김영귀

十月十二日 발행된 회평양주보에 김의준씨가 동지
회 호상부에 대한 기사에 의해서 나 개인의 견을 진술
함이다

김의준씨가 호상부장리를 우려하여 지금 호상비
六
十 전되는 것을 원으로 증가하자고 수차 말은 하였스
나 동지회 호상부 당국이 드른제 안이 하였다 하며 호상
비 증가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돈너기를 조화하는 사람이 어디잇스티오만은 지금
호상비 너는 것은 전부 호상비 二百七十원을 지금하고
몇수원유지전이 남아서 전립금에 첨부호다 이현상
호상부가 몇히를 치루어간다면 호상비 전립금은 몇수원
에 불과하리라 니 장리호상을 위하여 무슨 돈으로 장
리관출할싸함이 지금판제이다

五百명이상부원을 망라호호상부드셔 二년 三개월

스리오출다

나 개인의 견으로는 호상비 증가를 찬성하너 그리유
를 설명하자면 첫째 호상비 줄음니고 호상비 적위
지출을 몇수원감하여 호상부에 적립에 매번에 몇수원
씩이 있게 되어서 몇히 동안에 동지회 호상부를 공고하
디대에 세우자는 것이오 둘째로는 호상부에 전립금이
적만이나 되면 그제에는 중년된 한들이 호상부에 입
침하여 호상부를 유지할 것이오 세시로는 지금 호상
비 줄내는 사람이 만을 노코 무준히 내가며 또 다른 사
람은 호상부 전립금 거액 보고 신용상관개로 호상부
에 들것이다

나부러 더 내기 노불한이 지만은 자라를 위하여서는 있
질수업시 지금 호상비 보다 좀더 너서 전립을 하여 장리
화근을 면출출알고 몇수년후 근경을 막기로 보립비를
더 너는 데로 알겠습니 다

十년이장간입니다 지금 더 너기 수얼라고 六十전만
너서 지너다가 사람수효가 주러지면 그때부순돈으로
호상비를 관출출수잇스리오 몇수년 잘너오다가 호상

간에 호상부 전립금이 겨우 수어원이 말출전되어스 담년
에 전립금이 상당히 저금되어 장리호상을 치루어 가리
오그럼으로 어느 때회사 드지 전립금이 상당하여야
그은 회에 신용이 되고 돈은 갖다 맞진다 호상부도 금들
회사와 갖히서 호상부 전립금을 증가할사록 호상부에
대한 신용이 공고하고 회사의 위신이 높히져서 가량수
만 전립금이 호상부 명의로 은입해 저금되면 호상부
에 들지 말너도 들사람이 만출것이다

그럼으로 호상부에서는 호상 전립금을 지금부러상
당히 세우크를 힘쓰게 안으면 몇히 후에는 곤란할것
흔속 한번 호상부원은 명년부러 호상비 증가에 대하여
만히 생각하를 만하도다 혹은 말하되 지금 호상비 六
十 전되는 데 二百七十원 지출이니 무민호나 호상비
전의을 감하자하느니도 잇스며 또 는 말하되 호상비를
자그만 지출여노야 호상비들이 너기 박차지 안을리
이락하며 몇몇사람은 호상비 증가를 찬성하야 말하
를우리가 지금 호상부 전립금을 상당히 세워노치 안으
면 언제누가 호상부 전립금을 수만원까지 증가할수잇



적립금이 부족해서 장비관출에 곤란하게 된다면 보통
홍사람이 만을 리이다

나의 견해는 호상부에서 년래금 一천만은 것은 제의
하고 신임의 현에 개안 임피금으로 얼마를 한 번에 너게
하고 호상비를 一천으로 증가하여 적립금세우는 것을
찬성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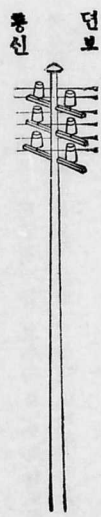
참상양아

구라파정계 파동을 본색하는 푸레미리, 스노든의 기
서를 본즉 영국 총리 처칠씨는 영국 구수당 사당들을
정부가 열에서 축출하였는데 그의 예도 사실주의를 주
장하는 몇몇정객이 처칠할 수상에게 강경한 최후통첩
을 보더니서 망항기를 명년의 틈안에 영국이 미국으로
구전에 참가케 만들지 못하면 총리를 사직하라 그리하
고 비본가정공급대신은 출루후야 영국 국민명의로 비
린과 화를 매저 보겠노라 하며 처칠로 자유힘등을
취하여 상의대로 六개월내에 미국의 선전포고를 내
노라 하였다 방관자 주축에서는 루스벨트씨가 전선되

면 처칠할이 그의 상약을 리할할 것 같다

영정에 주둔한 미국대사 케니 되씨는 처칠할과 루스
벨트씨간의 심부름을 바 근일와서는 케니 되씨의 영
국에 대한 신용이 박약하여 집으로 루씨는 주재와 신용
영국대사를 통하여 양국간 공판거리를 하여온다 미국
대사 케니 되씨 의견에는 영국이 히틀러에게 정을 하도
만히 당해서 미국이 도와주어도 쓰르 데업쓰르 만치 되
었노라 하였다 그 림으로 영정 미국대사는 사면겠다는
말까지 낫스며 주미영국대사는 비협곡으로 귀국하여
영국의 대덕항전진침을 묵정하고 도라와서 매우 긴장
하는 말을 미국 국민에게 전하며 영국이 인제는 부지할
수 잇노라 하였다

영. 미 양국정객의 원동정치는 다 작정하여 노았다 하
는데 전관가예산에는 휘평양회전에 미국이 승전하리
라 한다 영. 미 합동히군과 일본히군에 비교하면 영. 미 양
국히군이 후승하여 일본히군을 저하나라 근거지에 정
중케 하고 출입을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잇스며 그리된다
면 일본은 엇질수 업시 나와 싸울 수 밧게 업다 한다



제 一 차 증빙

와성훈연... 十月二十九일에 철국무정이 제 一 차 증
빙을 처음으로 씌울리던데 증빙동독한 사람은 호수를
할리이다 처음 씌우는 호수가 二五八이 되던 각 지방에
二五八호수가 전 사람들이 씌힐리이다

전국년 一 千六百만 동독인중에서 약 八 十만명을 금
년十一月十八일 노명년 六월五日년에 증빙으로 선포
되야 一년근사 훈탄을 밧고 후비병으로 최심화리이다
하와이 군도에는 十月二十六일에 정정난자 一 十 一
세로 三十五세된 사람이 너외국인을 불른하고 다 동독
호리이며 하와이와 프리코에서 八 百명으로 千명증빙
을 선포할리이다
증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작막게 하듯이 증빙동
독호수를 의이한 케통에 너어서 그 짓을 혼드려서 나

오는 자가 생히게 된다. 증병九十만명, 군인병四十만과 상비병을 총합하면 합중국육전대가 一百五十만에 달하며 육군부에서는 후비장관과 육군을 소집 하였더라

해군가축지인

마닐라연: 아시아합대 함도독은 말하기를 필리핀 해주둔함정군가족은 전동양에서 인양함파괴치 셴편 잇는대로 미국에 귀국하라 하였는데 육군가족의 인양에 대한 권고가 없다

선비증가른시비

상항에 잇는 미국인들은 공동대회를 소집하고 괴션 회사에서 선비증가흥을 반대성토하였는데 맷손회사 괴션에 최하선비는 三百九十五원 와성돈호는 四百五十원이란다

공양으로 향하는 괴션은 피란민을 수용할만치 각종 선비를 한전케올리이다 임의 보도호박과 작치 한국에 잇는 미국인선교사와 가족 六百여명은 환국키로 결정하

고온은 정전후에 밧으라 하였다 루멘니아에 군사를 보 니서 서유저정지를 보호한다 하고 루멘니아로 군수를 옮 을 미국에 수출시킨다

지금 미국의 경제상항이 위태하여서 불화수입에 의 국위제로 대상을 수입해서 볼관반도제국 다러 불화를 의 상으로 미국에 용달하 라 하였다

공습의 귀를 신현

총정전: 일본인들은 적국의 항공습격과 귀를 불경 이 당하는 것처럼 뒷세동안 보도하야 일인으로 공습피 귀를 실지로 경험케한다 비협괴도 셴편관을 발하야 전 군공대가 전몰과 천도를 파격하였고 五千명이 죽으니 하며 一만사민으로 목탄세라 지는 것을 무격케 하였다 공대에서 시로 목탄세라 지는 것을 무격케 하였다 항공대가 도성을 습격하는 판정을 실행하였다

동정은 성난가비로 집을 지운 것까지 폭탄을 더 제 서파격하며 총화키가 제 인용이 없고 불이나면 자살을 서 이 기업술만 한다 금년에는 동경이 정밀망하는 것 처

고 셴편을 교섭하는 바 1월부러 피란민이 호항에 도착 할리이다 한인사교회에서는 한국서오는 셴교사 一동 초대 셴것을 의문하고 추후에 반포하리라 하며

영총리의 연설

론론연: 처취할 총리는 영, 법, 양국에 연설을 방출은 바 비지법정부는 그의 연설은 법어로 통할 시에는 으레 의오방위로 못못재하였다 영국총리는 영, 법, 양국민의 합동을 주장하며 一九〇〇년에 손히는 좀 당하지 않은 영국은 회상 주권을 보전하고 一九一四년에는 합공주 권을 가질리이다 합공국원조로 히를 때를 증벌할리인 데그시일이 멀지한으리라 하며 히를 때가 우리를 박멸 못하면 우리가 히를 때와 그 단당이며 작당을 분명히 파 멸할리인즉 우리는 모든 것이 순성되기를 희망하노라 하였다

미국의 경제관

뉴욕연: 미국은 전란정제를 모용키로 유코솔로미 국을 압제하여 불화들의 상으로 미국에 할가로 수출하

럼사민을 징집하였다

비미사상이란

상항연: 미국은 일관으로 남진정책을 추실함을 불 구하고 영, 미항자에 남방침략을 주저한다 미국은 일 본으로 남진을 신하서 영, 미가 일본과 충돌되기를 기대 한다 일본은 아라사동정을 살피서 적당할 시에 당도를 개터린다 겨울이라야 구라파국경이 쇠기는 동시에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정하고 나서 미, 영국과 가 잠간 정된 면 동인도를 침입할 예산이다 마스우가의 상은 파격군 빌과 남진정책과 불합하야 일본을 이 지금 동인도 정령 함을 반대한다 하라

영, 더기의 항공전은

미국은 영국과 오히려 불합하야 거대한 손헌을 제 쳤스며 몇천 동안에 영국사선박 三十二만대를 침몰하였 노라 하였다 미국서 외국에 발송하는 보도를 어느정도 싸지는 아모조록 금지하였다

영국항공대는 미국의 조션소, 석유저장소를 폭격하



표공습항야 건물파괴와 인명손해를 끼쳤는데 영인축
보도에는 영국항공대가 이랄리를 공습하였노라 하였
다

버마로들과 궤갓다고

하노이던 : 안남에 주둔한 일군사령관 스미다는 말
하기를 장개석군대에 군수품을 미국이 노 다른나라가
공급하면 일본은 버마로들과 궤갓다하며 버마로개동
으로 인하여 일본정부는 항항파워평양 남방에 있는 영
국수령을 아득갓히서는 봉채치안오리라 하였다

래소에 1만톤 물화와 탄약에 50만톤이 적치되었
고 중국인사자는 미국 제조추력 2千대에 기름을 처기
에 분주하였다. 군수품은 밋칠후에 운송물이며 위선
그간에 적처한 물화를 운송물이다. 그물화중에 일본
제조 각종 물과 제조물약 1만톤이 운송케 되었는데
버마로가 미친후에 일본부역상은 판로가 막히서 손히
로당하였다

중정정부는 버마로개동에 새용기가 나서 대일항전

편합한인 위원선언서

본편합의인부는 단순히 미국국방에 대한 우리의 의
용적활동에 한함이오 각단체의 직접관계는 조공도
관려이업술을 이에 선언한다

동방의 대륙과 유럽의 각국이 다가치전적에 참화에 불
살리면서 뜻나의 승리를 서로써함은 일본파독일의 침
약적군벌주의에 대한 승국과 영국의 민주주의 결사적
항쟁이라 인위력사에 처음보는 실로부서음 저정정의
승부야말로 실상은 자유와 속박 정의와 죄악 신성파노
의의 두가지의 세계를 건설하고 혹은 파괴하는 나쁜바
의 후회근심판이라 의문있는 사립으로야 있지그물변
상의그림인양 무심히볼수잇스리오

후 허나온데 저러한도전의 침약적자유린용박단 우리들
의저에 대한 정의의 분노는 능히 철지를물살고도 오
하러나남이잇지만은 의만론의 후한 하릴 가리는 비
인기 라디언탄탄탄탄가튼것의 과학의계화에 대한 괴
물인양인우리들은 비복된추악으로 인양정 의회잇술제

외평양주보

을전보다더 유효하게 개시할리이라 하고 연벌대르를
파슈하며 일본항공파괴를 응하하여 벌슈있다 하였다
로마성에서 말함하는 신문은 버마로개동에 대하여
평항기를 버마로개동은 미국화하고 화승에 불대는 것
파갓히서 미국이 참전될것을 다함하며 이 인 3국 동맹
이 버마사변과 관련되어서 성립되었고 영일총들은 불
가페라 하였다

강철수출금지

미국정부는 강철동속과 파쇠를 1월 16일 부터 일
본에 수출할을 루종영표령으로 금지하였다 그림으로
일본은 각처에서 파쇠구취하기에 급급하다 멕시코에
서 일본은 파쇠 2만톤을 미국인이 불노도감보담 더주
고사갓스며 필립핀에서도 3千톤을 증가에서 간다하
였다

동경미야고 신문은 미국의 철물금수에 대하여 평항
기를 파쇠금수는 미국에 대하여 빈정거리며 조롱하기
를 미국은 아모연고입시 전정에 참가케되리라 하였다

마다 우리의 적당권리를 회복하고 위대한 국가를 전
설하고저 본투하여 인노라

오 드종본한다 현대의 소양국 민족된 저참패군졸아
체코도조선가져 폴린도체코가져 저항보고 완약한
히를러의말밧에 유린되었다 아니라 잊지아련이라
은 세계가 이제 거의 다 짓발피여간다 그럴사독도적
의부리들은 더욱 발악하여 소위 벌린앤시스 라는 3
개전국의 군사동맹이 성립된후로 세계의정세는 한층
더험악하여지고 적당의 쇠입에 슬어나는 일본의정부
는가업순 최후적비명의소리를 울피어호령하며 중앙
의천지를다 짓발피여 숨기어 미국의문호로 바로달려를
고저준동한다

일본의국민은 본대가 보양수한근거업는 민족이라
그를중지하는 정부조차천절하게 지도하고 정전하게
자송하여온 미국정부와 국민의호의를 그되로바들속
혼자격이업서 드디어상국 동맹이라는 죽임의부담보
구부를파들어섰다

사람이 아무리 십잔하기로 도적의칼날이 눈앞에 빈전

十三



어는 데 그 뒤로 안저잇솔이 어 더잇솔이오
상히물음심으로 송국의 각지를 통하여 미국국기의
주일을 모욕하며 미국세민의 남녀를 쌍을치고 세벳기
고매질하며 군함을 격침하고 군인을 참살시키는 등 수
천가지의 횡포를 일인이 힘할제마다 국제공약의 존수
를 전철히 권고하고 동방각국의 현상유지를 경저경저
선언하여온 미국정부의 은인자함을 신사적 위도는 인
류의 귀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미국정부는 이제 용맹스럽게 정의의 국민을 총동원
하기 시작하였다 인류사회에 영원한 상중인 민주주의
의 옹호와 새전설을 위하여 거룩한 용무를 씌우고저 만
가지의 국방준비를 급급하게 추진한다

암흑혼이 세계에 유일한 인류의 옹호자를 미국에서
발견케된 인류의 깃들이야 다시 말하여 무엇하랴 세시
대를 창조하는 거룩한 공작에 공물을 여가하는 위대한 인
류옹호자에 더하여 우리는 오죽감사의 기도를 드리노
라

다시 정적방면으로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국회의 직을 기피했다 르면서 이를 친화반방에 선
언하노라

단결하라 모음도 사랑도 정신도 지능과 지력도

도다한길로

활동하라 민활하고 충성하고 우준하게

공천하라 민주주의로 인류를 해방하고 옹호하라

정의의 전장작

대한민국 21년 10월 21일

연합한의원(가단대표)

- 손승윤 현 순 리현순 안현경 도진호
- 안원규 김현규 김현용 김현남 정두옥
- 김영선 손창희 차진호 정덕영 박성달
- 리명순 정순이 김순연 손노희 리유실
- 심영선 파평숙 김차순 김매들린

가단체 대표디회

미국열구 립시준비위원들의 청중대응하여 가단체
대표들이 10월 21일 히오시에서 국민총회판넬에서

태평양주보

인격과 신성함 이상에서 표현되고 응용되어야 하는 미국
정부의 건전한 미국정치를 우리도 민족부러 편적으로
찬성하여 왔고 또는 압력으로 더욱 협찬하고자 맹서하
노라

연합미국정부의 국방에 대한 급급한 공작을 잘리히
하는 우리는 이에 분연히 일어나서 가단체가 유감없이
연합하고 정신을 전진하게 통일하여 우리에게 가장적
방문방법으로써 국방에 대한 훈련을 받고 노력을 더하
야일이잇솔제! 의용적으로 헌신활동 만가지의 한부
분일지라도 미국정부의 요구에 상응되는 공헌이잇기
를 귀담아매우리의 사명이 결코 지지 아니함을 다시 새
다르고 기피깃바하노라

미국의 국방준비는 단손히 국민적협력을 의의하
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동양과 유럽의 천악을 떨치고 만
족파국가에 대한 희망적인 변명을 또할복적함이니 이번
우리연합위원의 이음동은 곧조선독립운동의 광범한
의 활동을 의미하며 또다시 그러서는 재인류의 희망전
선에 대한 의용군인임을 의미하리라 우리의 정성은 한층

회집하니 가단대표제서는

○부인구제회

정순이 김순연 손노희 리유실

총 심영선 파평숙 김차순 김매들린

○유한민중동맹회

정두옥 차진호 손창희 김영선

○독립단

정덕영 박성달 현 순 리명선

○동지회

손승윤 리현순 안현경 도진호

○국민회

안원규 김현용 김래현 김현규 제씨이요

림사회장과 립시서기를 택정하니

림사회장 안원규 서기 김현용 명씨가 피선되다

림사회장 안원규씨가 승선하여 사무를 처리하시게

리훈사함은 아래와 같다

1. 지금 비상시를 당장이셔에는 계속 협의의 필요요에 의
하여 가단체 대표직과 권한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



대를 조직하기로 한다
 二. 동리관의 임무를 선행하니 (련합한인위원)이라 한다
 三. 임원을 선정하니

위원장 리원순 부위원장(一) 김현규

동(二) 현순

서기 김원용 저무 안원규

四. 임원들과 합석하여 다음 회의 순서를 정하게 할
 야 임시 순서위원 七인을 택정하니

김유실 심영신 안현정 정두옥 차신호 안원규

五. 전례위원의 소지는 임시로 임의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기로 한다

六. 임원급 순서위원들의 합석회의는 十月二十二일 하
 오七시에 국민총회관에서 회집하기로 한다

七. 오아후도에 있는 한반유지인사들을 청하여 시국의
 긴급문제들을 심의하여 의견을 교환키로 하되 순
 소위원이 선립하기로 한다

八. 오아후도 한인단체대회일자 와 장소는 순서위원
 택일하여 발표케 한다

九. 차이와 분론을 피기 위하여 의사범위를 제한하되 당분
 간에는 비상시에 소지국에 대하여 우리의 의무를 리
 힘하기 에 가 지적 당을 방도를 장구 실행케 하기로 하
 였더라

선교사 환영준비

본국에서 六百여 미국인 선교사들이 일인화정에 성
 활이 곤란할 뿐 아니라 미국국무성 권고에 의하여 선교사
 전부가 환국코려인데 황니미갈리프, 피독프, 갑독프며
 그의 몇몇단체 대표들이 十月二十一일 하오에 회집
 하여 선교사 환영준비를 논의하고 一 밤에 계속 연으로
 一 원식청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환영준비위원 임시회
 장은 김창순목사 서기는 김영갑씨로 선정하였는데 환
 영준비위원은 각 교회목사며 김영갑, 황해수, 리덕성제
 씨다 十月二十七일 하오二시에 감리교회 주실에서 또 모
 친다더라

○련합구제금모집성공

금번 호향련합자선 구제금모집에 한인부명의로 三

百十五원四十五전을 수봉하였는데 이노우리의 당부
 額三百十五원이상을 넘어서므로 웨이페아 사업총부
 합일흔씨는 매우 기뻐하며 조선사람의 자선심을 칭송
 하였더라

수봉액수 총 황해수 百六十一원五十전 장영각 九十
 八원二十五전 김창순목사 三十二원四十五전 조평원
 선부 二十三원二十五전 이상합금이 三百十五원四十
 五전이다

련합구제사업한인부 회장 김영갑

●전준일씨 별세

본도와 하와이의 지방에 거주하던 전준일씨는 十月二
 十二일 연주교 병원에서 불행히 별세하였는데 씨는 우
 리 호상부원인으로 二十三일야를 향니 호상부원 다수
 가 모여 안주장의소에서 경야호후의 일十二시야호
 향기독교 예배당에서 김창순목사 주례로 장의식을 거
 행한후 와히와장지에 안장하였습니 다

가처에 산지호 一 밤 호상부원은 씨의 별세를 조관하

태평양주보

는 동시에 경야 호상금 속히 부송하여 호금지급에 구
 세가 임도 특하시기 바랍니다 동지회중앙부장 손승윤

보고

경계자 본지방에 류하던 리정준씨는 六十六세 도환
 으로 十月十六일 별세하였는데 씨가 사역한 본주인이
 장비를 담당하여 十七일에 공동묘지에 장사하였습니
 다 씨의 원직은 정성품안이라 함을 기 고보 합니다

민국 二十二年 十月十九日 마위 파이어 민씨라

동지회중앙부장 손승윤 각하

동포제호상을 감사

불효막대호죄로 가천에서 七月十七일에 별세하시
 와 애동양극호중애 선친의 일반 지우 제씨에게 부울을
 一 一히 본전 못하였으므로 죄송천안으로 소이니
 당일 밤에 마수부형과 친우에서 섰드워 7 장의소에
 오셔서 조문 위로하시와 감사함을 마지않습니 다
 선친장소에 화환과 꽃을 보니서서 호상봉정을 표하
 신바 제제히 사뵈 못하오니 너그레히 용서하시기를 바

十七

박나나

一九四〇년十月十九日

자 김기화 자부 김나오씨
내식 강매리 서당 강일부 등 비

동지회중앙부주일 제정

○외교비

호항 박동근 四원 장의환 四원 리영순 四원
정인식 四원 안현정 四원

박나나 박학임 四원 ○하나문과만 四원
이상합금 二十八元

정운서 一원 ○하나문과만 一원
박학임 一원 이상합금 六元
○자동차비
평사준 一원 김영기 二원 리철봉 一원
박보광 五원 ○부내네 김정순 一원
성광화 一원 리동운 一원 윤찬준 一원
남경주 一원 김치현 一원 유복옥 一원
김원신 五원 민사타 一원 정지삼 一원
김근영 一원 리승걸 一원 성수화 一원
한대석 一원 조희식 二원
장인경 二원 남정현 三원 김홍기 三원

치카로 이상합금 三十七元

○외교비

호항 리근배 二원 ○박나나 박학임 四원
리윤정 四원 ○와일리아 김경섭 四원

호항 박주법 三원 배일진 二원
김성운 一원 김한구 五카 김화서 五카

하나 김상우 四원 ○힐토 리봉희 八원
이상합금 二十六元

호농가 김용구 五카 리사만 五카 정희준 五카
고석연 五카 김지선, 二五 리윤환, 二五
리정선, 二五 양도만 五카 정도준, 二五

호항 박동근 一원 장의환 一원 정인식 一원
○인구세

림현벽, 二五
과하우 김윤삼 一원 김치규 一원 홍우순 一원
리만영 一원 리순홍 五카 김홍주 五카
유병순 五카 명종식 五카

임치준 리관섭 진영준 마진실 김홍준 라화춘
김광지 안득은 리은구 리찬준
이상호상금 四十元六十元 남태금 정인식 一원
이상합금 四十一元六十元
부원총수 五百五十七元

이상합금 二十一元

동지회호상부주일 제정

보단

○호상금 고서창을조 리은형 라화춘고, 남경식
리은형 라화춘고, 고인길조 박희우 리덕규

유화근 윤병찬 김창순 장한조 최자신 김영조
정지삼 최용근 홍건일 명사준 정인식 리성삼
김상호 김진모 리춘화 최현숙 리은형 송평국
신치준 리관섭 진영준 마진실 리병준 조병선
김동준 라화춘 리은구 리찬준고, 리정도조
박희우 리덕규 윤화근 윤병찬 김창순 장한조
최자신 유진연 김안정 정지삼 최용근 홍건일
명사준 최춘서 정인식 리성삼 김상호 김진모
리춘화 최현숙 리은형 장영린 송평국 김홍준

○인사소식
○와히아와 김병을씨는 피인애를 남편으로 삼았으며
시쿠인병원에입원 치료중이라함
○본향진영준씨는 천추일씨장례식에 조객자로 오다
가자동차의충돌로 피상되여 연수요양원에 입원하
야 치료중에있다함
○본향 권성지씨는 권일복과친분이 다시알고복귀한
병환여인원하야 다시치료를유했다함

○연락처주소
MR. K. C. HYUN
3128 ESTHER ST.
HONOLULU, T. H.



○광고 리발쇼

본인이 릴리하거리 빈야드코너에잇는 리발쇼를 매
월하야 리발사업은 「신화장호고 리발업을개시하엿
습니다

항니항외에게인 일반동포씨서 만히차자와 주실시
오리발도 미로케하러니와 수업도개시시 약습니다

릴리하거리, 빈야드코너 五〇三호

리발쇼주인 고치윤 빅

○광고

본인이 다른사업을 경영하와 호텔거리 一四六호에
잇는 리봉침전방을 방매코져하음는데 한인의재는 특
별업가로방매켓습니다

각종의복과 정봉귀구가 구비습니다

호텔거리 一四六호 재봉전 주인주, 예부, 흥



東양셔오노비

十一月

六日 전 오마루

닷수다

十六日 콜리취

廿一日 야와다마루

가마구리마루

東洋로 가노비

十一月

十日 배부린

十三日 크리브린

廿四日 닷수다마루

廿八日 직손

사랑시세

한돈 二,七〇
五十四원 廿四원

돈시세

인화百원예
미화廿四원

부부출판

광고 식물전방광고

百一 호로

본인이 베리한니아거리 아아라코너에 식물전방을
신설하엿사습는데 (각항식물, 각색채소, 각종과실, 식
물로는 업는것이 업습니다 불전은 조코 신선한것을
취해고 같은 다른전방보다 좀 할하재 파울너다
의심마시고 본상전에차자와서 한번 시험해보시오
특별히 농장에게신동포의 부탁하옵습니다 식물의부
잇이던지 원하시든되도 부탁하시던 귀수용하여를일
력이오며 또한 농장에서 채소종속에 무엇이던지 본
상전에 보내고 부탁하시던 상담한감에 팔아서 실수
업시히들일하오니 누구시던지 한번 시험해보시오
피차 인연을매져서 장터사업에 취미를잇게하세다
호랑 베리한니아거리, 아아라코너 三二九호

식물상전주인 황룡의 고빈

미화 六八二八一

Y. Y. WHANG

329 BERETANIA Street
Honolulu, T. H.

광고 돌인씨력

본러만은 광활하야 거처에편리하오며 공과가선선
하야오성에 적합하며 항구중앙에잇으니 상업상에편
리하며 더음목욕들은 늘잇고매사를 잘주선하야신수
수용하야드림니다 一 반동포씨서 만히차자오시습
플인씨 러판주인 김서윤 빅

一二四九 꽃거리 던화 六八三五九

광고 강 의 사 오 피 쇼 광고 三六日十
一월十六

사무소는 딜링턴 빌딩 三二四우동

사무소전화 五一九八

사저전화 九三九〇四

외화박사 김영복



한국기독교연구원

Korean Christian Institute
2134 HALINA STREET KALIHI UKA
HONOLULU, H. I.
八九三九三號

호향한인교회교번의

Korean Christian Church
1832 LILHA St, Honolulu, T. H.

이제 영부인과 호향교회 두 교회에 대한 모범적인 양식의
만디의 거대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버모어호수 - 릴리하스 스트리트 1832번

리버모어호수 八八七五五



사무소

페리클라니거리 五〇五 센트럴빌딩
(양유찬의사의 사무소 건너편이름이다)
사무소는 三三二一〇
사저에는 八九三九三
화면
리버모어호수 六七一四八

리원순

○의심론의교부번의

DR. SYNGMAN RHEE
1786 Hobart Street, N. W.
Washington, D. C.
Cable: Koric
Phone: Hobart 2975

광 (식품상점) 고

부인의상점의 동서양 각종식품과 술이구비하오니
다수유모구 애고상심에 바랍니다

릴리하 신물상점주 림두순

릴리하거리 1111호

전방전화 八七六九二

사저전화 八八二九三三

LILHA SUPPLY & LIQUOR STORE

1211 Liliha St, Honolulu Tel. 87692 - 882923

특고

본회상부의 판공야는 무삼의본이나 호상에대할것
은호상부 주부배인전제외로 서신으로던지던화로던
지속정판의하심시오 그리아소식이 빠르고 신속할터
이오이 주의하심시오 중앙부 특고 전화 八八七九二

광고광부

광고 동패문상점

三九號
三廿五

본점에 각종 패물이구비하오며 각종패물은 소선대
제 조도하며 사기에 렌티키워하여 의상이므로도 말매
이후
주장선 후원받지

리버모어호수, 볼트바 각종시계와 각종유구 패물이구비
하오며 리버모어호수, 볼트바 코너를시작

Canton Jewelry Co.
CREDIT JEWELER
Corner King & Smith St

Phone 2973

광고

본회의와 실림은 동포의편리를위하여 시작하온
바나나도 동포의편리를위하고 환란에 고통을시도하는 동포의
정신으로

감곡 몸살 귀부족 협소

부인에 제반혈중 임부의 불합 등

여러가지 증세의적합한 로제가구비하오며

킹 팔타마 코너 八二四號

약국주인 감상호

三三

경고

식물과 약종이 구비하고 있으니 소용력으로 청구하시오
면신속히 수용하십시오

△약품 심전대보환 1제 4원 심전대보탕 1제 4원

출당 1편 중 2원 50전 삼용보의수 1병 4원

현삼 1동 15원 22원

1동 20원 20원

자양환일제 4원 조정환일제 4원 우황청심환일제

2원 이외에도 영단 영신환과 그라 각종약이며 각

종소설과 우라비신대소등이 만이외사오니 한번시험

하야보시오 설에지인생삼 1근에 3원 5각

특고 이속공우인삼부처대조감었다섯가지로조합

권고인데 냉중습중 모든 채중에 신표있는 신발편이

소니 이상병증이잇는분은 일차시험하야보시오 누은

수고한근에 2원이오 삼수고환 1근에는은 5원

본인이 약품과 식물과 소설중속을 발매하는바 매

현편에 본국서세로들어온물건이외사오니여려분
이광고에잇는것을주문하시면 즉시수용하겠습니따
특용극상품 1당중 10원(四) 4물탕 1제 2원

안치환(갑피약) 1갑 50전 〇주의말습 1권 75

전 〇조선어독본(표파서) 1집 1원 25원 〇

〇조선력사 1권 40전 〇삼국지 1집 1원 75원

유린중 1집 1원 75원 〇충정전 1권 50전

편두머리압훈데의약 〇니알는데약 〇극상품비단

플당초 1근 2원 〇사향 〇경사 1품중 50전

유편 1권 1원 25전 〇충정사대 1권 1원 25전

수은, 산골 삼용대보환 1제 9원 소합환 1개

20전 이외에현식물이나, 약품이나, 각종 소

설이 구비하고오니 한번하대한동모는 이고히주심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BAI YIL CHIN

549 N. SCHOOL ST. Honolulu, T. H.

전화 八八七九二

호합 五四九 스콜거리

배일진



同 志 會 三 大 政 綱

DONG JI HOI

喚起百萬同志

□ 一, 우리 독립선언서에 공포하라 공약
 三장을 실시하라 三一 정신을 발휘
 하여 뜻있게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
 야 비폭력인 회생적 힘동으로 우리
 대업을 성취하자

□ 一, 조직적힘동이 성공의 요소이니 우
 리는 개인힘동은 일절 버리고 단대
 합위안에서 질서를 존중하며 지휘를
 복종하자

□ 一, 정계자유가 민족의 생명이니 자작
 자금을 합쳐 도모하자

發揮三一精神

태평양주보사

매주 목요일 발행
 사무소.....북킹-스퀘어 九三一호
 우함.....一五七三번화.....八九八四九

임원

대금

주필..... 김열거 一권..... 一〇〇
 편집..... 一년..... 四〇〇
 발송..... 주소를 변경하면 즉시
 저부..... 김유실 본사로 꼭지하시오

▲ 주의하시오 ▼ 공지회중앙부 사무소 고립
 ▲ 거서나 회에 관계한 서류는
 중앙부장 손승윤씨의게로
 ▲ 최을청구하나 정지하나 최에 관계되는 것과
 ▲ 각항광전과 주보대금을 상부검제부
 김유실씨의게로 보내시옵
 영안은 북이대로 쓰시오 Y. S. LEE

